

News

2금융권 대출 은행으로 대환 추진...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까

아주경제

인수위, 코로나19 긴급금융구조안에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담길 예정...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출 차이로 인한 부담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나눠가진다는 구상... 이번주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업권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신한은행,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면제

이데일리

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고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55세 되면 일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 중 선택 가능... 경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도 가능

신한은행,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돈 댄다... 사업비만 5조

국민일보

신한은행, 총 사업비 5조 4,000억원 규모의 부산 스마트 시티 '에코델타시티' 짓는데 투자... PFV를 만들고 자본금 1,000억원 중 200억원 투자
나머지 사업비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다른 금융사로부터 PF 등의 형태로 조달... 수익성은 낮지만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이점 확보 목적으로 알려져...

하나금융투자 신남방 시장 공략... 베트남 BIDV증권 2대주주 등극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투자, 베트남 1위 국영은행의 증권 자회사 BIDV증권 지분 35%를 1,4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 2대 주주로 올라...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BIDV증권 디지털 플랫폼 리뉴얼 등 서비스 개선과 고객 기반 확대 추진 예정... 증자된 자금으로 위탁매매, 신용융자, 고유계정 투자 강화 등 활용

'중지업' 요구한 보험사들...삼성생명 계약 생길까

대한금융신문

생명·손해보험협회, 인수위원회에 보험사의 중합지급결제업 진출 허용 요구... 획득 시 예금과 대출업 등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 대부분 취급 가능해 주요 신사업으로 부각
업계는 중지업이 플랫폼 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는 중... 손보협회는 올해 초 사업계획서에 플랫폼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기도... 또한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에도 기여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보험사들, 최근 몇 년 사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매년 최고치 경신 중... 올해 들어 각 보험협회에 총 14건의 신청 가운데 9건 획득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에는 작년 신청건수인 31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대부분 3~6개월에 불과하나 마케팅 수단으로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IPO 감소·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3월 주식·회사채 발행액 전월비 ↓

한국경제

주식과 회사채를 합한 총 발행액은 전월대비 10.6% 감소한 13조 8,606억원으로 집계... 국내 기업 주식 발행 규모는 총 9,605억원으로 전월비 32.1% 감소
이중 IPO가 980억원으로 전월비 57.9% 감소... 7건 모두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로 구성... 회사채 발행액은 총 12조 9,001억원으로 전월비 8.5% 감소

넷플릭스 폭락에 ELS 원금 날릴라... 609억 규모 '녹인 배리어' 터치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연계 ELS 중 60억 1,350만원 규모 상품이 녹인 배리어 터치...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발행한 ELS가 주를 이뤄...
21년 5월 이후 발행한 종목 ELS가 대부분... 아직 녹인배리어 터치하지 않은 ELS는 1월 24일 이후 발행한 상품으로 아직 간격이 남아... 대부분 170달러 선에서 정해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